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평가 및 의의

-파벌정치적 관점에서-

최지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I.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개관
- II. 중국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의 인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III. 중국 정치의 새로운 틀 - 파벌정치와 집단지도체제
- IV. 글을 맺으며

I.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개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전대)는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기구로서 21세기 세계질서의 한 축으로 등장하는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변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매년 세계의 관심을 끌어왔다. 전국대표대회가 이와 같은 관심을 끄는 것은 전대의 여러 가지 직권 중, 당과 국가의 핵심정책의 방향에 대한 결정과 중앙위원회 위원 선출 등과 같은 당내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권 행사 때문이라 할 것이다.

우선, 5년마다 1회 열리는 전대에서는 매 회 당 지도부의 새로운 이념과 비전이 제시되고 전대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뒤 법률화되어 집행된다. 1987년 열린 13전대에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확정되었고, 1997년 15전대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2002년 16전대에서는 장쩌민 전(前) 국가주석의 “3개 대표론”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공산당 당헌이 수정되고, 이듬해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에 맞게 헌법 전문이 수정되었다.¹⁾ 즉 매 회 전대에서의 정책결정은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 가는 주요 지

1) 공산당 전국대표대회(혹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와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임기만 5년으로 같고 실질적 권위에서는 아직 상하구조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전인대는 매년 3월에 정치협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나, 주로 전(前)년도 가을에 결의된 당 전국대표대회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의를 입법화 하는 역할을 하고, 당에서 내정된 국가주석, 국무원이나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최고인민법원 등의 법적 기구의 지도자들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당 우위의 권력구조는 근본적으로 공산당 1당 체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다당제가 실현되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침이 되어온 것이다.

두 번째 전대의 주요 직권 중의 하나로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 선출 등과 관련한 인사권의 행사를 들 수 있다. 특히 중앙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거를 통해 정치국과 중앙 군사위원회를 이끄는 중국 권력의 핵심 중추를 선발한다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공산당 1당이 지배하는 정치시스템 하에서 운영되고 있기에, 공식적 부문 뿐 아니라 비공식적 부문의 영향력 즉 인치(人治)적 요소가 여전히 강력한 국가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고 지도부를 비롯한 중앙 지도부의 인적 구성과 성향이 어떠한지는 향후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올해 10월 15일부터 21일 까지 개최되었던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7전대)에서는 후진타오 체제의 국정이념으로 “과학적 발전관” 이 당헌에 삽입되었고, 이를 반영한 전반적인 국정 운영 방향이 제시되었다. 또한 17전대에 참석한 대표 2200여 명이 204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였으며, 17전대 폐막직후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1중전회)에서는 중국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 9인을 포함한 정치국 위원이 선출되었다.²⁾

< 표 1>: 중국 공산당 당 중앙 구조와 17전대(2007년 10월 22일 기준)

구 분		위원 및 서기	
전 국 대 표 대 회	중앙 위원회 (위원, 후보 위원)	총서기	후진타오(胡锦涛)
		정치국 상무위원	· 위원: 우방궈(吴邦国), 원자바오(温家宝), 자칭린(贾庆林), 리창춘(李长春), 시진핑(习近平), 리커창(李克强), 허궈창(贺国强), 저우용강(周永康)
		중앙 정치국	·위원: 시진핑, 왕강(王刚), 왕러첸(王乐泉), 왕자오궈(王兆国), 왕치산(王岐山), 후이량위(回良玉), 류치(刘淇), 류원산(刘云山), 류옌둥(刘延东), 리창춘, 리커창, 리위안차오(李源潮), 우방궈, 왕양(汪洋), 장가오리(张高丽), 장더장(张德江), 저우용강, 후진타오, 위정성(俞正声), 허궈창, 자칭린, 쉬차이호우(徐才厚), 귀보우시웅(郭伯雄), 원자바오, 보시라이(薄熙来) ·후보위원 : 없음
		중앙 서기처	·서기: 시진핑, 류옌산, 리위안차오, 허용(何勇), 링지화(令计划), 왕후닝(王沪宁)
	중앙 군사 위원회	· 주석: 후진타오 ·부주석: 귀보우시웅, 쉬차이호우 ·위원: 양광례(梁光烈), 천빙더(陈炳德), 리지나이(李继耐), 라오시룽(廖锡龙), 창완첸(常万全), 징쯔웬(靖志远), 우성리(吴胜利), 쉬치량(许其亮)	
	중앙기율 검사위원회	· 서기: 허궈창	

2)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중전회로 약칭) 시기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당 전대) 폐막 직후 연속하여 개최되고, 2중전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는 다음 해 봄에, 그리고 그 해 가을에 3중전회가 열린다. 그 후 매년마다 가을에 한 차례씩 중앙위원회전체회의(중전회)가 개최되어, 5중전회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뒤 3년이 지난 시점에, 차기 당 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7중전회가 개최되어 폐막과 함께 전(前) 차수당 대회 중앙위원회가 해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역대 중국공산당 전대회 중 가장 현안 이슈가 적었다는 평가를 받는 17전대는 후진타오 2기 체제의 출범과 과학적 발전관의 제창, 상하이 방과 환파이(團派, 공산주의청년단)간의 계파 갈등, 당내 민주화의 정도 등에서 관심을 받았었다. 이 글은 무엇보다 17전대에서 진행된 당내 주요 인사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중국 정치의 게임의 룰로서 진정한 의미의 파벌정치와 집단지도체제가 시작될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의 및 전개방향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II. 중국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의 인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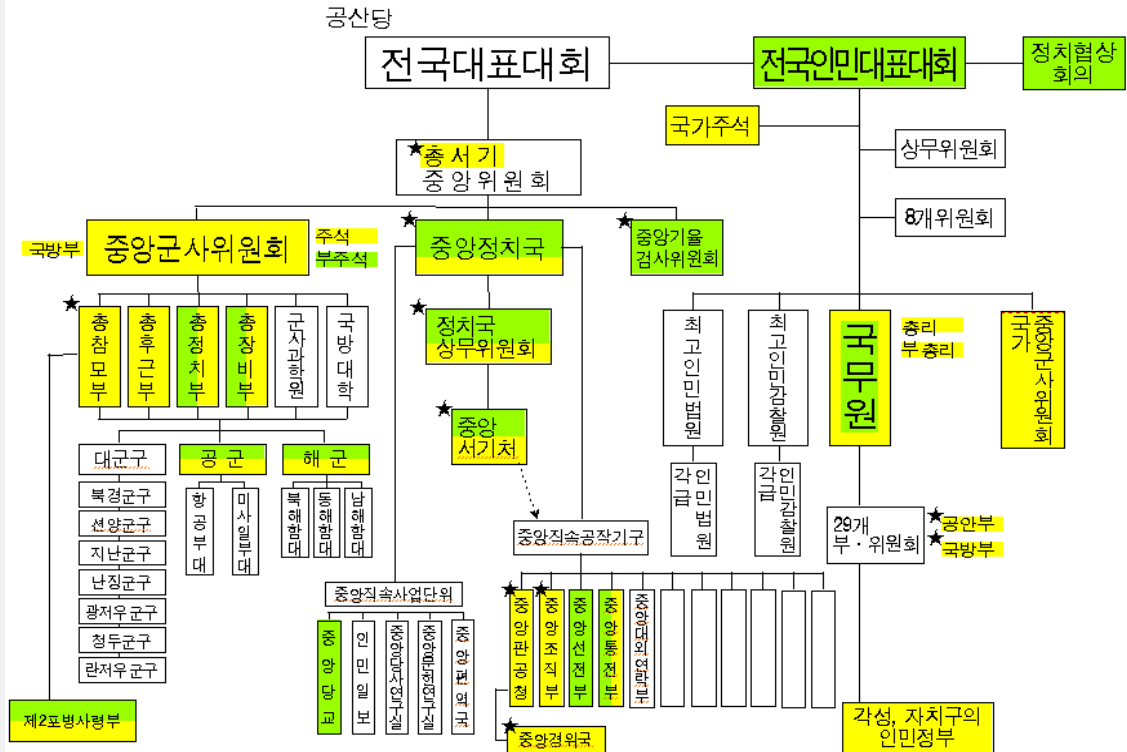
2002년 개최된 16전대에서 수립된 후진타오 집권 1기는 전임 장쩌민 체제와의 기묘한 동거형태로써 불안정하게 출발하였다. 당시 장쩌민은 16전대를 통해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를 이양한 후에도, 한동안 당과 국가의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보유하고였으며, 무엇보다 권력의 핵심부인 당·정·군의 주요 요직에 국가 부주석 쟁칭홍을 비롯한 다수의 비(非)후진타오 계열이 포진하고 있어, 그 동안 권력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17전대의 출범을 계기로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후진타오 체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권 2기를 맞이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정치사상적 측면을 보면, 17전대에 참석한 공산당의 전국대표들에 의해 후진타오 체제는 재신임이 결정되었고, 또한 후진타오가 제창한 “과학적 발전관”이 당헌에 규정됨으로써 후진타오는 비교적 안정된 사상적 기반 위에서 집권 2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집권 1기를 마치자마자 자신의 통치이념인 “과학적 발전관”을 당헌에 삽입함으로써 후진타오는 중국 공산당 역사의 최고 지도자 반열에 당당하게 끼어 수 있게 되었으며, 2002년 11월 퇴임 직전 “3개 대표 이론”을 당헌에 넣은 장쩌민에 비해, 향후 추가권력 강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하겠다.

둘째, 당·정·군 및 지방에서 16전대에 비해 장악력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이다. 17전대의 현상적 결과만을 보자면, 정치국 상무위원회나 중앙정치국 같은 당 중앙에서는 장쩌민-쟁칭홍 계열의 상하이방이 여전히 다수를 점하였고, 차기 후계자 경쟁에서도 상하이방과 태자당이 후원하는 시진핑이 당 권력 서열 6위로 권력서열 7위인 후진타오 계열의 리커창에 비해 후계자 경쟁에서 한 발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듯 후진타오가 차기를 둘러싼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도표 I>과 같이 중국의 전반적 권력지형 변화현황과 후진타오 이전 과거 환파이의 위상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일반적 예측과는 다른 분석도 가능하다. 즉 파벌정치적 측면에서는 환파이가 중앙정치에서 상하이방에 맞서는 주요 파벌로써 자리를 잡았고, 이로써 후진타오는 자신의 집권 이후 시기까지를 염두에 둔 장기적 구상과 이에 대한 정치적 준비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도표 I> 17전대 이후 중국 권력구조와 주요 파벌의 조직 장악도



<노란색: 후진타오 계열의 탄파이, 푸른색: 장쩌민-쩌칭훙 계열의 상하이 방, ★은 조직 내 핵심부서>

17전대의 결과를 보면 상하이방과 태자당 등 비(非)후진타오 계열이 비록 당 중앙(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여전히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16전대와 비교해볼 때, 후진타오 계열의 탄파이 인사들이 당정의 실무분야와 군사 그리고 지방에서 전반적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의 일상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서기처에서는 후진타오의 핵심 측근 리징화(李징화)와 리위안차오(李維朝)가 각각 판공청 주임과 조직부 부장을 맡아 후진타오의 의지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무원에서도 원자바오에 이어 경제담당 부총리로 리커창이 기용될 예정이고, 국무원의 29개 부위원회에서 핵심 부서인 공안부와 국방부도 각각 후진타오 계열의 명정주와 량광례로 내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후진타오 계열 인사들의 포진(총참모부·총후군부)으로 군부에 대한 친정체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끝으로 지방 당위원회의 서기 및 상급 인사들의 결과도 탄파이 인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³⁾

3) 지방 지도자들 중 탄파이가 강세라는 것은 지금까지 대부분 파악되었던 바 이기에, 여기서는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다. 다만 현재 31개 성시(省市) 최고지도자인 당서기, 성시장 62명 중 후진타오 계열의 탄파이가 결집력의 스펙트럼에 따라 구분해 볼 때, 보수적으로는 18여 명 정도 넓게는 32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들 중 상당수가 후진타오 집권 이후 대대적으로 발탁되었고 각자 특정 시를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태자당이나, 특정한 지역 기반에 한정되어 있고 현 집권 세력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상하이방에 비해서는 탄파이의 범위와 결집력이 높고, 후진타오 집권2기 추가 성장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기에, 향후 탄파이가 파벌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하겠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정치국과 정치국상무위원회를 제외하면 오히려, 특히 당내 핵심 부서(도표 I의 ★)에서는 후진타오의 탄파이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무엇보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젊은 인사들으로써 인사 승진 단계에 따라서는 향후 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의 순조로운 진입이 예상되기에 설령 리커창 등 탄파이가 후진타오의 직계 후계자로 자리 잡지 못하더라도 탄파이는 그 이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국과 같은 최상급 부서에서 다수를 유지하고, 상하이방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시진핑이 후계자 경쟁에서 리커창에 비해 한 발 앞선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상하이방과 태자당은 수성(守城)에 성공하였다 볼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탄파이 인사인 리커창과 달리 시진핑⁴⁾은 상하이방으로서 색깔이 약하고, 나아가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가 아직 5년이나 남은 점을 감안하면, 탄파이가 결코 언론에 나타난 것과 같이 차기를 둘러싼 대결에서 패배하였다고만 볼 수 없다. 오히려 비교적 취약한 권력기반에서 출발한 후진타오가 그동안 중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공산주의청년단 출신 인사들을 대거 중용함으로써 탄파이를 상하이방에 필적하는 명실상부한 당내 주요 파벌로 구축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집권 2기의 실질적 권력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Ⅲ. 중국 정치의 새로운 룰 - 파벌정치와 집단지도체제

정치학적 측면에서 본 파벌은 정당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직화된 정치집단이라 할 수 있다. 파벌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일정한 정책적 차이와 집단의 권력적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배타적 대립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높이며, 내부적으로는 봉건적 온정주의·유대 관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근대적 신분질서가 뿌리 깊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비(非)공식적 정치집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당의 경우 정치적 이념이나 국정의 기본노선에서 상호 구별되기에 하나의 조직 내에 공존하기 어려워 다당제로 나아가는 경향이 강하나, 파벌의 경우 이념이나 노선보다는 이익과 진영논리, 그리고 일정한 정책적 차이로 형성되기에 정당과 같은 동일 조직에서의 존속이 가능하다.⁵⁾

이러한 파벌은 정도를 달리하여 각 나라의 정치체제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특히 시진핑은 아직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임되지 못하는 등 확실한 후계자로서 자리를 확보한 것도 아니고, 또한 태자당 출신으로 공청단과의 관계도 원만한 그의 이력을 볼 때 그가 서열 6위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입성한 것은 탄파이와 상하이방 양대 파벌의 세력균형의 접합점으로 선택된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다.

5) 물론 이 같은 정당과 파벌의 구별기준은 각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서는 혼재된 상태로 전개될 수 있다. 즉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정당정치가 아직 발달하지 못한 경우 정당의 외연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파벌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 및 경험적 유한성으로 인해 가족이나 혈연, 동료와 같이 동종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이는 공식적 활동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과 같이 거대하고, 봉건적 네트워크 문화(관시문화)가 강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요소, 즉 정치체제에서 인치(人治)적 요소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이념적 단일정당인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정치파벌은 공식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또한 공산당의 비밀주의적 전통과 폐쇄적 정치 시스템 및 파벌 자체가 가지는 일정한 은밀성은 파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이에 파벌의 존재와 의의를 둘러싸고 중국정치를 당과 파벌의 이중적 정치문화로 보며 파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견해(대표적으로 루시안 파이, Lucian Pye)와 단순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는 입장(앤드류 내던, Andrew Nathan 등)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치를 파악함에 있어 파벌정치라는 시각은 선정성과 과도한 의미부여만 경계한다면, 여전히 중요한 인식 틀이며 나아가 후진타오 이후 파벌 정치적 측면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가 보기에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내 파벌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 지도자에 의한 **도구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는 점이다. 즉 중국 공산당은 역대로 최고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집중적 측면과 최고지도자와 동급의 지도자들이 합의로 이를 추진한다는 합의적 측면이 공존하였는데, 특히 최고지도자급에서 정책이나 사상적 합의가 붕괴되는 경우 상대방을 해당주자나 분열주의자라는 낙인을 찍는 형태로 축출하여 자신들의 권력기반 및 정책적 일관성을 지킨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동원되는 파벌개념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결합된 도구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마오쩌둥은 정적 제거를 위해 전략적으로 특정 지역 출신들을 등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하나의 파벌을 형성케 하여 자신의 손과 발로 활용하였으며, 덩샤오핑 또한 개혁개방이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⁶⁾.

결론적으로 중국 파벌정치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같은 절대적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 강화 및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파벌의 형성과 존재를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였고, 이것이 중국 공산당 내 파벌정치의 발생과 동시에 근본적 제약조건으로 기능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집중제라는 공산당의 독특한 운영원리와 1당 지배체제,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한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파벌정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 라 할 수 있다.

6) 다만 모택동 시절은 정치적 격변이 지나간 후 반대파의 집중공격으로 주요 파벌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부침이 심하였다면, 덩소평 시절은 개혁개방과 같은 경제체제 변혁을 위해선 보다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정치체제가 필요하였기에, 천안문 사건과 같은 정치적 위기상황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파벌의 교체가 드물었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중국의 파벌정치는 정치체제의 특성상 다른 나라의 파벌정치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주지하다시피, 후진타오는 덩샤오핑에 의해 장쩌민 집권 시절 이미 그 뒤의 후계자로 지목된 인사다. 따라서 덩샤오핑의 절대적 카리스마를 생각하면, 비록 그의 사후(死後)지만 후진타오가 장쩌민의 뒤를 이은 것은 어찌 보면 자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후진타오 이후, 즉 2012년 이후는 덩샤오핑의 유훈이 닿지 않는 시기이다. 아직까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이 파벌을 넘어선 절대적 권위를 지닌 존재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후진타오 이후의 역사를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가야 상황이고, 이 같은 미래에서 일정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파벌 간 집단지도체제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겠다. 필자가 향후 중국에서 이제 진정한 파벌정치가 시작될 것이라 보는 것은 일차적으로 절대적 권력자의 부재라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향후 중국 파벌정치의 전개과정을 예상해보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재 파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데, 17전대까지 중국 공산당을 보면 크게 환파이, 상하이방 그리고 태자당의 3개 파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먼저, 태자당을 보자. 흔히 태자당은 중국 공산당 혁명원로나 고위간부의 자제들로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공산당 내 인적 집단을 지칭한다. 태자당은 강력한 조직이나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집중형 구조라기보다는, 혈연관계·학교·결혼·직장 등을 통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판시(關係)의 네트워크’라 하는 편이 더욱 정확하다. 즉 파벌로써 태자당은 아직 확고한 위치를 가지기 힘든 느슨한 형태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89년 6.4 천안문 사건을 야기한 중국 민주화운동의 핵심요구 중 하나가 ‘태자당의 비리척결’이었을 만큼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으며, 이에 중국 지도부에서도 공산당 내부 태자당 출신들의 승진을 늦추도록 결정한 적이 있을 만큼 쉽사리 조직화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향후 상하이방과 환파이라는 양대 파벌의 강화 과정 속에서 태자당은 케스팅 보트를 쥔 제3세력으로 거듭나 하나의 파벌로 성장하던지, 양자에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의미 없는 소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현재 모두 병존하고 있다 하겠다.

그 다음, 장쩌민을 정점으로, 상하이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형성된 인맥이자 공산당 내 주요 파벌의 하나인 상하이방을 보면, 태자당에 비해서는 조직적 결속력이 강하나 환파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직이었던 상하이방은 특히 17전대를 계기로 전 국가 부주석 쟁칭홍의 용퇴와 함께, 후진타오 계열인 환파이와의 대결에서 수성(守城)에 성공함으로써 주요 계파로서 존속 및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조직의 외연이 여전히 모호한 점은 있으나, 이는 지금까지 덩샤오핑 하에서 발달한 파벌로서 가지는 한계로 파악되며, 향후 강력한 파벌로 등장한 환파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조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현재 중국 최고지도자인 후진타오의 권력기반인 탄파이는 후진타오가 공청단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중앙 혹은 성급 단위의 공청단 조직에서 간부직을 맡으며 그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인물들의 관계망을 말한다. 탄파이 인사들은 그동안 공산당 내 상대적 비주류로서 존재하였고, 태자당이나 상하이방과 달리 부모세대의 후광보다는 개인적 능력과 지방 및 기층 조직에서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야망과 조직적 응집력이 남다르다. 즉 정치적 지향(분배의 강조)이나 조직적 결속력 등이 상하이 방 등 여타 파벌보다 강하여 현재로서는 전형적 의미의 파벌에 가장 가깝다 하겠다. 특히 17전대를 계기로 탄파이 인사들이 중국 중앙정치무대에 상당수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일파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러한 탄파이의 등장은 향후 파벌정치의 강화를 예고한다 하겠다.⁷⁾

파벌 정치적 시각에서 중국정치를 연구함에 있어 유의할 것은 특정 인사를 성급하게 특정파벌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것과 공산당 내 파벌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중국 내 파벌 정치는 형성과정에 있어 상당수 당내 인사들은 계파의 중간에서 힘의 항배 및 상황변화에 따라 정치적 결정을 유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기에, 특정인사가 탄파이인가 상하이방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⁸⁾. 그렇지만 동시에 최근 중국 내 강화되는 정보공개 의 흐름과 각종 자료 -17전대로 드러난 인사이동 결과나 개개인의 정치적 이력 및 성과와 인적 관계 등-에 근거할 때 탄파이와 상하이방 양대 파벌의 위상 및 정체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전체적 추세는 비교적 분명히 관측되고 있다.

파벌정치는 상대방을 절멸시켜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에, 근본적 대립 보다는 주도권 다툼으로 전개될 것이다⁹⁾. 따라서 향후 파벌정치가 강화되더라도, 공산당이라는 조직적 틀을 부정하거나 개혁개방과 같은 당의 기본노선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분배나 성장과 같은 일정한 정책적 차이를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번 17전대에서는 당내 인사와 관련하여 나이나 지방행정 경험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및 본인의 부패 여부 등과 같은 불문법적 규칙이 강화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모두 파벌 간 집단지도체제가 공산당 내 게임의 틀로서 형성되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7)그 밖에 중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칭화대학교와 베이징대학교 출신들을 지칭하는 칭화방, 베이따방 등이 있으나 이는 권력구조를 구분 짓는 계파라기보다는 일정한 학맥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8)대표적인 것이 시진핑이라 할 수 있다. 모든 파벌과 두루 친한 시진핑과 확실한 탄파이 인사인 리커창은 이 같은 측면에서 대조적이다. 특히 리커창의 경우 그가 탄파이라는 사실은 출세의 기반이자 동시에 반대파들의 주요 표적이 되는 한계지점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정치적 이력을 보면 확실한 상하이방이라 보기는 어려운 시진핑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는 과정에서 상하이방의 지원을 얻은 것은 정확 상 확실하기에 향후 그가 상하이방의 색채를 강하게 보여 후진타오와 대척되는 지점에 설 것인지, 아니면 파벌 간 협력을 강조할 것인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하겠다.

9)물론 파벌 간 대립이 화해불가능한 상태가 오면 파벌의 전제가 되는 조직적 틀을 넘어서는 혁명적 대립이 촉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태자당이나 상하이방과 같은 존재는 엄밀한 의미에서 파벌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즉 덩샤오핑과 같은 1인의 절대 권력자의 존재로 인해, 파벌이 가진 독립성이 약하여, 온전한 의미의 정치적 파벌이라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이 사망하고, 17전대를 계기로 파벌적 성격이 명확한 환파이의 등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하이방 또한 조직력 및 정체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양 파벌은 분배와 성장이라는 일정한 정책적 차이와 정치적 지지기반 및 이익기반의 상이함 등을 대척점으로 하여 점차 파벌적 색채를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IV. 글을 맺으며

이제 덩샤오핑이 지명한 두 명의 후계자 가운데 두 번째인 후진타오 시대도 임기 중반을 넘어선 지금, 중국 공산당은 진정한 의미에서 포스트-덩샤오핑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이에 17전대는 포스트-덩샤오핑 시대를 공산당 일당 체제 하의 파벌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한 당의 지속 및 발전이라는 “파벌정치”와 파벌들 간의 집단지도체제가 정치게임의 새로운 규칙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겠다. 즉 공산당이라는 틀과 개혁개방과 같은 대전제를 승인하는 복수의 계파(상하이방과 환파이, 그리고 태자당)가 상호견제와 조율 및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며, 이러한 합의가 곧 중국 사회를 이끄는 규칙이 되는 체제로 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이에 17전대는 절대 권력이 점차 사라져 가는 지금 중국공산당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며,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하겠다.(2007/11/13)

